

10월 4주
예수님을 위해 살아요

-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20 (10월 21일 본문)
- **포인트:**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해요.

≡ 1. 찬양

(경배와 찬양)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 2. 기도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성장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가족이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세요.

≡ 3. 말씀

갈라디아서 2:20을 함께 읽습니다(말씀을 3번 읽으세요).

*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반복해서 읽으면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역개정판 성경>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말성경>

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본문 이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된 바울은 자기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고백해요.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이에요.

□ 인도자를 위한 본문 이해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방문했던 갈라디아의 도시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디베였어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방해했기에 계속 옮겨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한 방해에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디베와 루스드라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의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지고 성도의 수도 날로 늘어갔어요(행 16:1~5). 또한 3차 전도 여행 때 이 지역을 방문해 교회를 돌보았어요(행 18:23).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돌본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는 부족하니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또한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으며 바울이 전한 복음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성도들을 선동했어요. 이에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자신의 사도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임을 강조해서 말했어요. 더불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도 틀림없는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어요. 바리새파 출신으로 율법에 정통했던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변화되었어요. 그는 율법의 한계를 깨달았고, 구원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완성됨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4. 나눔

1)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에 이제 자신 안에 누가 사신다고 했나요? 또한 자신은 어떻게 산다고 고백했나요?(20절)

■ 저학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바울은 이제 어떻게 살고 있다고 고백하나요?

■ 유아, 유치

바울은 이제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말하나요?(20절)

□ 질문 가이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었어요. 자신의 모든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셨기에 이제 더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수 없었어요. 그가 사는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이에요. 바울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본받고, 그분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가치 있는 삶이라고 고백해요.

□ 인도자를 위한 해설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한 거짓 교사들의 교훈에 반박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 주고자 했어요.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 죄에 대해 죽은 존재이고,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해 의에 대해 살아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해요(벧전 2:24). 구원 은혜는 우리에게 값 없이 주어졌지만, 그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이 자기 생명을 희생하신 크신 은혜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자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고백해요.

2)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기에 내가 과감히 포기하거나 수정할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저학년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의 생활 계획표를 만들어 보세요.

■ 유아, 유치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해요!"라고 외치고 날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기로 해요.

□ 질문 가이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한다면, 나의 계획이나 가치관에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린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라는 개념이 어려울 수 있으니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는 나의 하루에 초점을 맞춰 나누어 보세요.

□ 인도자를 위한 해설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바울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해요.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 죽을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에 이제는 내가 나를 주장하며 나의 소욕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해요. 내 삶의 가치와 목표, 그리고 삶의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나누어 보기를 바라요.

≡ 5. 감사하기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세요.

≡ 6. 기도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